

# 대한 양계협회

소식

## 축산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본회는 농림수산부 축정 51501-301(95.

**표1.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현 행	개 정 안	본 회 의 견	
		내 용	사 유
제28조(축산업의 등록허가의 규모 및 절차 등) ①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허가대상인 축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8조(축산업의 등록허가의 규모 및 절차 등) ①현행과 같음	현행대로 존치하여 주시기 바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란계용 중병아리 사육업은 양계업이라기보다 일종의 종축업이자 서비스업으로써 병아리 사육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성계능력이 얼마나 발휘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양계업자(중병아리를 구입하여 채란업을 영위하는 자)를 보호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등록토록 하여 행정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수한 병아리를 육추판매토록 유도할 필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1회당 병아리 육추 규모를 최소한 1만수라고 보아 현행규정을 그대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 등록대상인 축산업 가. 기재생략 나. 산란계(종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육계(종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5만수이상 또는 산란계용 중병아리(산란계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5개월 이하의 병아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만수 이상 양계업	1. 현행과 같음 가. 기재생략 나. ----- ----- ----- 3만수 ----- 2. 이하 기재생략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기업자를 축산업에 참여케 허용할 경우 생산과잉이 우려되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일반 양축농가는 도산될 우려가 큼. ○현 국내 여건상 대기업자가 생산에 기담치 않더라도 일반 양축농가만으로 수요량을 충분히 생산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기업자가 축산업에 참여할 자금적 여력이 있다면 이를 유통과 가공부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기재생략 ②③ 기재생략 ④ 기재생략 1.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자 2-3 기재생략 ⑤ 이하 기재생략	4. 기재생략		

4.27)에 의한 축산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에서 산란용 중병아리 사육업의 등록 규모를 현행 1만수에서 3만수로 완화시키자는 내용에 대해 현행규정을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본회의 입장을 표1과 같이 농림수산부에 제출했다.

##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 농민연대 발족식 및 수입식품 불매· 서명운동 발대식 거행 본회를 비롯 35개단체 참여

본회를 비롯한 35개 소비자 및 농민단체는 지난 5월 19일 명동성당에서 각 단체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농민연대 발족식을 가진데 이어 수입식품의 선통관 후검사·유통기한 폐



지 저지를 위한 불매·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본회에서는 “외국닭고기 사지도 먹지도 말자”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이 대회에 참석했는데 발대식이 끝난 후 명동성당에 모인 참석자들은 탑골공원까지 평화적인 가두시위를 하며 수입식품 불매운동 취지 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불매운동은 미국의 부당압력에 대응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시까지 계속될 것이며 서명운동은 광복절 하루전인 8월 14일까지 각단체별로 3개월간 전개되고 가두서명은 매주 토요일 오후 서울역, 명동, 대학로 등에서 실시하게 된다.

### 양계산물 안전성 및 계분의 자원화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양계박람회 행사 일환으로

본회는 ’95한국양계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양계산물의 안전성 및 계분의 자원화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양계산물의 안전성 및 계분의 자원화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계획서

1. 일시: 1995년 8월 25일(금) 13:00-15:00  
2. 장소: 한국종합전시장내 ’95한국양계박람회 대회장

3. 주최: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한국가금학회

4. 후원: 농림수산부, 축협중앙회, 한국축산환경안전성학회, 가축분뇨자원화추진협의회,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축산시설환경학회

#### 5. 시간별 행사내용

가. 등록 (12:30-13:00)

나. 개회식 (13:00-13:20)

다. 주제발표 및 토론 (13:20-15:00)

구 분	주 제 발 표		토 론
	제 목	발 표 자	
종합주제	양계산물의 안전성 및 계분의 자원화	박근식 (한국축산기자체협회장, 전수의과학연구소 소장)	
부주제 I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 (최장: 김순재 전국대학수의학과교수)	박종명 (수의과학연구소 검정화학 과장)	배상호 (농림수산부 기축위생과장) 오경록 (남덕제니태크 대표) 일반토론
부주제 II	계분처리와 자원화방안 (정선부: 제주농업시험장 장장)	최홍립 (서울대 동물자원과학과 교수)	한정대 (축산기술연구소 시설환경과장) 이재식 (제유농원 대표) 일반토론
총 팔	양계산물의 안전성 및 계분의 자원화 (김순재, 정선부)	박근식	

### 양계박람회 지원봉사자 모집

본회는 양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축산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6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2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 안내, 행사장 관리, 행사보조, 통역(영어, 일어), 기타 박람회 전반적인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난좌대금 인상건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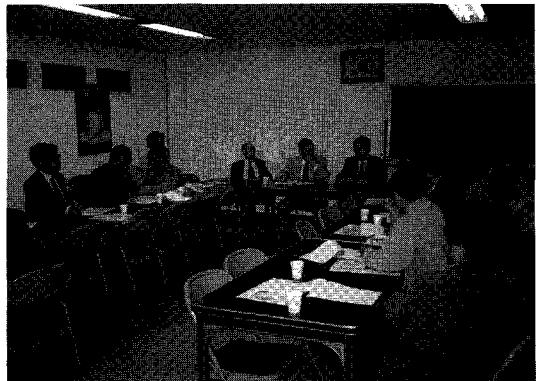
5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박승봉)가 지난 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달 이상 고난가시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여 계란이 모자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처럼 산란사료량이 늘어났음에도 난가가 지속되는 것은 생산성이 낮은 노계가 여전히 농장에 남아있음을 원인으로 보았다.

기타사항으로 난좌대금 인상건에 대한 합의각서(안)이 검토됐는데 폐지, 운송, 난가, 난좌의 질 등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결국 35원으로 난좌대금을 인상키로 잠정 결정했다.

###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백색산란계 P.S 주문량 늘어



5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국적으로 질병이 만연하면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산란계나 육계 모두 계란생산, 병아리생산 잠재력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주시하면서 병아리가격이 여전히 고가를 형성함에 따라 30~40%의 생산성을 가진 노계가 꾸준히 생산에 가담하고 있어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백세미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부화장들이 많은 물량을 계획하고 있어 복철에 쏟아질 백세미 물량이 육계가격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입식에 들어간 백색 산란종계의 경우 5월부터 생산에 가담하면서 주문량이 늘고 있으며 2월에 입식된 종계가 생산에 가담하는 8월경부터는 백색산란계 병아리가 많이 보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질병피해 심각



5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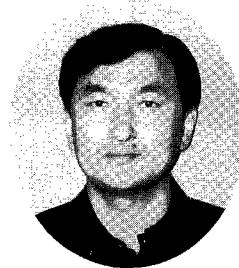
복입추를 앞두고 많은 관심을 보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ND를 비롯한 질병이 만연해 병아리 생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육계가격이 예상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리고 복전망이 불안한 관계로 계열닭들이 늘어 일반닭을 입추하는데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병아리 가격이 600원을 넘어설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질병피해를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과제라 지적하였다.

## 천안육계분회

피해농기에 성금 전달

천안육계분회(분회장 강용식)는 지난 8일 질병피해를 입은 농가와 교통사고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관내 회원들에게 성금을 모아 전달해주는 훈훈한 정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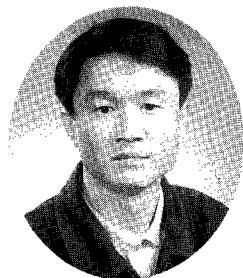
'93년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비회원에



△강용식 분회장

게 성금을 전한 바 있는 천안육계분회는 이번에 3만수씩 사육하는 두농가(최영복, 강희식)가 ND로 인해 전 계군이 폐사하고 교통사고로 형편이 어려운 농가(한기혁)가 나타남에 임시 회를 거쳐 폐사농가에게는 각각 50만원, 교통사고 농가에는 15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 직원 채용



△신한원

본회는 닭경제능력검정소의 시설 확충으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검정소 운영 및 검정사업을 추진코자 6월 1일부로 신한원(전 한국기생충박멸협회 근무)씨를 검정보조원으로 채용했다.